

## 충북지역 대학생과 그들의 어머니의 혼례관련 의식연구

# The Perception and its Practice on Marriage Ceremony of University Students and Their Mothers in Chungbuk area

정 영 숙\* · 권 수 애\*\* · 장 혜 자\*\*\*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 충북대학교 가정관리학과\*\* · 충북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Chong, Young Sook\* · Kweon, Soo Ae\*\* · Jang, Hye Ja\*\*\*

Dept. of Child welfare, Chungbuk National Univ.\* · Dept. of Home Management, Chungbuk National Univ.\*\* · Education Center of Educare Teacher Attached to College of Human Ecology, Chungbuk National Univ.\*\*\*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differences of the perception and attitudes between university students and their mothers.

Subjects were consisted of 375 university students and 305 mothers living in Chungbuk area.

SPSSWIN program was used for data analysis and the frequency, percentage,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and verified t-test,  $\chi^2$  were utilized. It was shown that both of two groups want a modern style for the wedding. And they prefer the weekend and holidays as a wedding day. University students hope that they will be ready for the expense by themselves with a little help from their parents for the shortage of wedding expense.

**Key Words** : marriage ceremony, marriage expenses, a relief fund

## I. 연구배경

오늘날 사회의 변화는 사람들의 가치관 및 인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혼례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사람들의 개인주의적 성향이 증가되고, 내적인 삶의 충실보다는 외적인 측면을

추구하게 되는 물질만능주의와 상업적인 허식의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과거의 혼례는 전통적으로 가문과 가문의 결합으로서 가족간 그리고 개인간의 성스러운 결합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또한 통과의례로서 새로운 가정의 탄생을 의미하는 행사였다(이영인, 1993).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모순들로 인하여 물질에 치우치고 있는 호화 약혼식이나 혼인식, 과다혼수 등은 전반적인 혼례의 허례허식을 부추기고 있으며 과소비, 사치풍조 등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

Corresponding author: Young Sook Chong  
Tel. (043)261 - 2744, Fax.(043) 260 - 2793  
E - mail: yschong@c Bucc.chungbuk.ac.kr

현대 우리의 혼례문화는 복잡한 혼례절차뿐만 아니라 혼례가 갖는 심오한 의미를 나타내는 의식이 기보다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정도로 가정과 사회의 병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분위기에 속해 행해지고 있는 혼례를 건전한 혼례문화로 개선하여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견해가 여러 연구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 예를 보면 신부측의 과다혼수가 혼인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으며(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1990; 한국가정생활개선진흥회, 1997; 한국소비자보호원, 1997), 신혼주부들의 혼례비용 지출에 대한 후회도 보고되면서(이기춘 등, 1992) 혼례문화를 바로잡기 위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혼례관련 가치관에 있어 이윤금 등(1999)은 어머니가 미혼자녀들보다 부모주도형 및 절차중시성향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하였으며(김명나 등, 1999 재인용), 미혼자녀들은 물질주의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혼례절차에 대한 의식에 있어서 어머니집단이 미혼자녀들보다 절차를 다 행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요구하는 검소한 혼례문화의 이행에 과다혼수 풍조를 부추기는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혼례음식에 관한 연구(김영인 등, 2000)에서 폐백음식은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충청지역에서의 폐백음식은 엿, 고기, 밤을 마련하여 3합이라 하였으며 7합까지 차리고 기수로 합을 원칙으로 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신부의 집이 아무리 어려워도 폐백음식만은 신부가 마련해야 한다는(이영인, 1993 재인용) 보고는 혼례에 있어 시댁어른에 대한 신부의 준비는 꼭 필요한 것으로 지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혼례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혼례비용을 조사한 저축추진중앙위원회(1996)는 결혼비용에 대한 지출에서 10.7%는 무리를 해도 괜찮다라고 응답하여 과소비적 소비의식이 결혼비용 지출면에서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신혼주택 마련비용은 신랑 단독부담이 83.9%, 신랑신부 공동 부담이 13.8%로 보고하여 신랑측이 주택마련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혼례문화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사회의 많은 기관들이 의식조사 및 실태조사를 하며 개선점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있으나 적지 않은 한

계를 갖는다. 혼인적령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성인이 된 자녀를 성인으로서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복을 장년의 성인이 되어 있는 시기까지 책임을 다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때 자녀들은 부모들의 계획하에 모든 혼례의 준비과정을 바라보게 된다. 그리고 성인들이 행하고 있는 혼례문화의 주도적 역할안에서 남녀 결혼의 절차를 밟게 된다. 그리하여 부모는 과다한 혼례비용지출을 알면서 일생에 단 한번 뿐이라는 명목하에 무리하게 성대한 혼례를 치르려 한다. 즉 부모세대와 예비부모세대가 올바른 혼례문화를 자각하지 못하면서 지속적인 병폐현상을 낳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젊은 자녀들과 혼인적령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올바른 혼례문화 정착과 의식고취는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즉 잘못 해석되어진 혼례의식과 문화를 수정하고 결혼을 통한 젊은 남녀의 꿈을 가꾸어 나가기 위하여 건전한 혼례문화교육은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충북지역 남녀 대학생과 혼인적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의식과 태도의 차이를 비교하며, 충청도민의 혼례의식과 실천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혼례의식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진단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이 결과는 충북지역 시민들에게 21세기를 발돋움하는 새로운 시작의 삶의 준비에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혼인적령기를 앞두고 있는 대학생들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2000년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대학생들에게 질문지를 직접 설명하여 응답을 받았으며, 어머니용 질문지는 학생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한 뒤 본인들로부터 다시 회수하였다. 그러나 어머니용 질문지는 기간을 오래 두었음에도 자가에서 다니지 않는 학생일 경우 회수율이 높지 못하였다.

대학생 600부, 어머니 600부를 배부하였으나 질문에 대한 응답이 불성실한 질문지를 제외한 대학생 375부(62.5%), 어머니 305부(50.8%)를 최종통계 자료로 사용하였다.

혼례가치관 및 혼수풍조에 관한 8문항을 5점 리커트척도로, 혼례비용에 관한 15문항, 육례절차에 관한 11문항, 기타 15문항을 구성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WIN을 사용하였으며 모든 문항에 대한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t-test,  $\chi^2$  검증을 하였다.

2. 연구도구 및 자료분석

연구도구는 선행연구(전효정, 1998; 홍형욱, 1998; 이윤금 등, 1999; 이정우 등 1999; 김성숙 등 1999, 박혜인 등 1999; 한정화, 1999)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작성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질문지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11문항, 혼례절차에 대한 필요도 16문항,

III. 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n(%)
연령	대학생	20대	355 (95.9)	대학생의 성	남학생	172 (48.5)	
		30대	15 (4.1)		여학생	183 (51.5)	
		계	370 (100)		계	355 (100)	
연령	어머니	40대	197 (65.0)	가족형태	확대가족	51 (14.4)	
		50대	92 (30.4)		핵가족	298 (84.2)	
		60대 이상	14 ( 4.6)		기타	5 ( 1.4)	
		계	303 (100)		계	354 (100)	
어머니 교육수준		중졸 이하	124 (40.3)	주택형태	단독주택	174 (49.2)	
		고졸	118 (38.3)		아파트	133 (37.5)	
		대졸 이상	66 (21.4)		연립주택	25 ( 7.1)	
		계	308 (100)		기타	22 ( 6.2)	
		계	308 (100)		계	354 (100)	
어머니 직업유무		유	167 (55.2)	주 성장지	대학생	대도시	35 ( 9.9)
		무	136 (44.8)			중소도시	224 (63.1)
		계	303 (100)			농어촌	96 (27.0)
		계	303 (100)			계	355 (100)
					어머니	대도시	35 (11.0)
						중소도시	135 (42.5)
						농어촌	148 (46.5)
						계	318 (100)
가정경제		상	2 ( 0.6)	출생 순위	대학생	맏이	140 (37.8)
		중상	39 (11.0)			중간	77 (20.8)
		중중	234 (66.1)			막내	146 (39.5)
		중하	64 (18.1)			외동	7 ( 1.9)
		하	15 ( 4.2)			계	370 (100)
		계	354 (100)				
종교		기독교	177 (26.3)		어머니	맏이	93 (30.7)
		불교	180 (26.7)			중간	153 (50.5)
		천주교	68 (10.10)			막내	56 (18.5)
		무교, 기타	248 (36.8)			외동	1 ( 0.3)
		계	673 (100)			계	303 (100)

연령분포는 대학생 20대가 95.9%로 대부분이었고, 남학생은 48.5%, 여학생은 51.5%이었다. 어머니의 경우, 40대가 65.0%, 50대가 30.4%이었다.

어머니의 학력은 중졸이하 40.3%, 고졸 38.3%, 대졸이상 21.4%로 고졸이하가 80%정도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직업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절반씩이었으며, 가정경제는 상·중상계층 11.6%, 중 66.1%, 중하·하계층이 22.3%이었다.

종교는 무교·기타가 36.8%, 기독교와 불교가 각각 26% 정도, 천주교 10% 정도였으며,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84%로 나타났다. 거주하는 주택은 단독주택 49.27.5%, 아파트 37.5%, 연립·기타가 13.3%였다. 주 성장지의 경우 대학생은 중소도시 63.1%로 가장 높은 분포이었고, 어머니는 농어촌이 46.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출생 순위는 대학생인 경우 맏이와 막내가 38% 정도이고 중간이 20.8%이며 어머니는 중간인 경우 50.5%, 맏이 30.7%, 막내인 경우가 18.5%였다.

**2. 원하는 결혼식 형태**

원하는 결혼식 형태는 <표 2>에서와 같이 대학생이나 어머니가 모두 현대식을 원하는 경우가 약

76%로 가장 많았고, 약 19% 정도가 종교식을 원하며 전통식을 원하는 경우는 평균적으로 5% 정도로 낮았다. 대학생과 어머니가 원하는 결혼형태가 현대식으로 거의 같았고, 전통의식에 대한 희망도는 너무 낮아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결혼일시는 두 집단 모두 주말이나 공휴일을 가장 선호하였고, 시간은 오전보다 오후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였다. 평일을 원하는 경우는 12% 정도였는데 평일은 오전보다 오후나 야간을 선호하는 비율(20.7%)이 높았다.

결혼일시의 경우 대학생이나 어머니가 주말, 공휴일을 선호하는 것은 사람들이 결혼식에 참여하기 위해 개인의 휴일의 활용, 프라이버시 유지, 새로운 여가문화 형성을 어렵게 하여 시간과 에너지의 낭비적 요소가 있으므로 평일로 하여 새로운 혼례문화 정착을 위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 원하는 결혼장소**

원하는 결혼장소는 <표 3>과 같이 전체적으로 일반예식장이 44.9%로 가장 높았고, 공공기관의 유무료시설이 27.8%, 종교장소가 21.8%, 호텔예식장이 5.5%순으로 건전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표 2> 원하는 결혼식 형태와 일시

	결혼식 형태				결혼 일시				
	전통식	현대식	종교식, 기타	계	주말 공휴일 오전	주말 공휴일 오후야간	평일 오전	평일 오후야간	계
대학생	16(4.5)	268(75.7)	70(19.8)	354(52.7)	146(41.7)	169(48.3)	4(2.9)	31(8.9)	350(52.8)
어머니	19(6.0)	240(75.5)	59(18.6)	318(47.3)	121(38.7)	146(46.6)	9(2.9)	37(11.8)	313(47.2)
전체	35(5.2)	508(75.6)	129(19.2)	672(100)	267(40.3)	315(47.5)	13(2.0)	68(10.3)	663(100)

n(%)

<표 3> 결혼식 장소

		호텔 예식장	일반 결혼예식장	종교장소	공공기관 유무료 시설	소계
대학생	남학생	8(7.1)	71(62.8)	18(15.9)	16(14.2)	113(100)
	여학생	9(8.3)	44(40.7)	32(29.6)	23(21.3)	108(100)
	계	17(7.7)	115(52.0)	50(22.6)	39(17.6)	221(100)
$\chi^2 = 15.19^* \quad df = 4 \quad p < 0.5$						
어머니		10(3.7)	105(39.0)	57(21.2)	97(36.1)	269(100)
전체		27(5.5)	220(44.9)	107(21.8)	136(27.8)	490(100)
대학생과 어머니간의 차이		$\chi^2 = 79.35^{***} \quad df = 7 \quad p < 0.001$				

n(%)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대학생과 어머니간에 고도로 유의한 차를 보여 어머니집단이 대학생보다 공공기관의 예식시설을 더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학생 집단내에서 남학생과 여학생간에도 유의한 차를 보여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일반 결혼예식장을 더 선호하고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종교장소나 공공기관시설을 선호하였다.

호화혼례에 대한 우려의 문제가 되기도 했던 호텔예식장의 선호도가 낮은 것은 바람직하였으나 대학생(7.7%)이 어머니(3.7%)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젊은이의 결혼에 대한 과시기대 심리로 해석되어진다.

#### 4. 혼례절차에 대한 필요

혼례절차에 대한 필요도는 5점척도(매우 필요함에 5점부터 전혀 필요치 않음에 1점)로 측정하였으며 결과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양가상견례, 건강진단서 교환, 청첩장 발송, 결혼식, 신혼여행, 하객에 대한 감사인사의 필요도는 4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학생과 어머니의 두 집단 간 사주교환, 궁합보기, 예단 및 예물교환하기, 폐백은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청첩장 발송, 야외촬영, 신혼여행과 감사인사는 대학생이 높은 필요도 수준을 보였다.

함들이기는 3 이하의 낮은 점수를 보여 필요도

<표 4> 혼례절차의 필요성 인지

M(SD)

혼례절차	필요도					
	대학생			어머니	전체	t-값
	여학생	남학생	전체			
양가 상견례	4.66(0.94)	4.37(1.07)	4.52(1.01)	4.53(0.74)	4.52(0.89)	-.14
사주교환	2.75(1.57)	2.80(1.78)	2.77(1.67)	3.31(1.41)	3.03(1.57)	-4.50***
건강진단서 교환	4.15(1.19)	3.49(1.35)	3.83(1.31)	4.00(1.07)	3.91(1.21)	-1.85
궁합보기	2.58(1.61)	2.35(1.39)	2.47(1.51)	2.80(1.31)	2.63(1.43)	-3.03**
약혼식	2.90(1.42)	3.00(1.30)	2.95(1.36)	2.75(1.23)	2.86(1.30)	1.91
예물교환	3.45(1.21)	3.26(1.35)	3.36(1.28)	3.55(1.00)	3.45(1.16)	-2.09*
예단하기	2.94(1.38)	2.84(1.36)	2.89(1.37)	3.09(1.02)	2.99(1.22)	-2.08*
함들이기	2.91(1.36)	3.04(1.40)	2.97(1.38)	2.94(1.31)	2.96(1.34)	.33
이바지음식	3.15(1.60)	3.16(1.67)	3.15(1.63)	3.03(1.29)	3.10(1.48)	1.11
청첩장 발송	4.09(1.15)	4.10(1.21)	4.09(1.18)	3.75(1.07)	3.93(1.14)	3.96***
야외촬영	3.78(1.26)	3.66(1.24)	3.72(1.25)	3.24(1.22)	3.49(1.26)	5.09***
결혼식	4.73(0.97)	4.52(0.98)	4.63(.98)	4.65(0.63)	4.64(0.83)	-.40
폐백	3.62(1.23)	3.47(1.42)	3.55(1.33)	3.86(1.00)	3.70(1.20)	-3.41***
피로연 음식접대	3.77(1.14)	3.85(1.19)	3.81(1.16)	3.83(1.02)	3.82(1.10)	-.19
신혼여행	4.54(1.04)	4.63(0.92)	4.58(.98)	4.27(.92)	4.44(0.97)	4.19***
하객, 부조자에게 감사인사	4.23(1.10)	4.41(1.04)	4.32(1.03)	4.08(1.12)	4.21(1.10)	2.83***

\*\*\* p < 0.001 \*\* p < 0.01 \* p < 0.5

참고: t값은 대학생과 어머니간의 차이검증 결과임

〈표 5〉 혼례에 대한 가치관

M(SD)

혼례가치관	대학생과 어머니					
	대학생 (N=355)			어머니 (N=318)	전체 (N=673)	t-값
	여학생 (N=183)	남학생 (N=172)	전체			
부모가 혼수준비 도와야 함	3.71(1.27)	3.63(1.19)	3.67(1.23)	3.79(1.00)	3.73(1.13)	-1.33
물질이 결혼생활에 기여함	3.67(1.29)	3.58(1.28)	3.62(1.29)	3.15(1.15)	3.40(1.24)	5.03***
예단이 시가와의 관계에 기여함	2.33(1.37)	2.23(1.30)	2.28(1.33)	2.24(1.12)	2.26(1.23)	.44
혼례시 축의금 교환 필요함	3.20(1.33)	3.29(1.28)	3.25(1.31)	3.11(1.13)	3.18(1.23)	1.46
과다지출풍조 만연하고 있음	4.64(0.85)	4.47(0.94)	4.56(.90)	4.47(0.76)	4.52(1.84)	1.33
혼례혼수 풍조의 개선 필요함	4.80(0.78)	4.44(0.97)	4.63(.90)	4.59(0.73)	4.61(0.82)	.59
간소한 혼례모델 필요함	4.58(0.99)	4.43(1.05)	4.51(1.02)	4.53(0.77)	4.52(0.91)	-.22
전통혼례가 바람직함	2.74(1.21)	2.77(1.26)	2.75(1.23)	2.75(0.99)	2.75(1.12)	.02

\*\*\* p < 0.001

참고: t값은 대학생과 어머니간의 차이검증 결과임

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건강진단서 교환은 여학생의 필요도가 남학생보다 높았다.

5. 혼례에 대한 가치관

혼례에 대한 가치관을 측정된 문항요소는 <표 5>와 같으며 이를 5점척도(매우 그렇다에 5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로 측정된 결과, 전체적으로 부모가 혼수준비를 도와야 한다는 의견이(평균 3.73) 높았다.

물질이 결혼생활에 기여한다는 생각도 보통보다 약간 높은 점수(3.40)를 보였으며 대학생집단이 어

머니보다는 물질의 기여를 높게 생각하였다. 예단이 시가와의 관계에 기여한다는 생각은 두 집단 모두 2.26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현 사회의 혼례풍조에 대해서는 대학생과 어머니 모두 과다지출 풍조가 만연하다고 생각하며 개선된 건전한 혼례모델이 필요하다(평균 4.52 이상)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전통혼례가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2.75점으로 보통수준이었다.

6. 혼례일시와 장소의 결정 방법

혼례일시와 장소의 결정은 <표 6>과 같이 전체

〈표 6〉 혼례일시와 장소의 결정방법

n(%)

결정 형태		신랑집에서 결정	신부집에서 결정	양가 합의로 결정	형편대로 결정
대학생	남학생	0(0.0)	1(0.6)	130(76.9)	38(22.5)
	여학생	1(0.6)	4(2.2)	147(81.7)	28(15.8)
	소계	1(0.3)	5(1.4)	277(79.4)	66(18.9)
어머니		8(2.5)	13(4.1)	242(76.8)	52(16.5)
전체		9(1.4)	18(2.7)	519(78.2)	118(17.8)
대학생과 어머니 간의 차이		$\chi^2 = 14.03^{**}$ df = 5      p < 0.01			

<표 7> 혼례비용 마련과 지출의 결정

n(%)

혼례비용 마련자		당사자가	주로 부모가	당사자와 부모 공동부담	부족분만 부모부담	계	
대학생	남학생	40(23.3)	6(3.5)	40(23.3)	86(50.0)	172(100)	
	여학생	56(30.6)	4(2.2)	38(20.8)	85(46.4)	183(100)	
	소계	96(27.0)	10(2.8)	78(22.0)	171(48.1)	355(100)	
$\chi^2 = 2.92 \quad df = 4$							
어머니		55(17.3)	17(5.3)	99(31.1)	146(45.9)	317(100)	
전체		151(22.4)	27(4.0)	177(26.3)	317(47.0)	672(100)	
대학생과 어머니간의 차이		$\chi^2 = 17.05^{**} \quad df = 5 \quad p < 0.01$					
혼례비용지출결정권		당사자	아버지	어머니	부모합의	당사자와 부모합의	계
대학생	남학생	15(8.7)	4(2.3)	4(2.3)	38(22.1)	111(64.5)	172(100)
	여학생	17(9.3)	1(0.5)	0(0.0)	37(20.2)	128(69.9)	183(100)
	소계	32(9.0)	5(1.4)	4(1.1)	75(21.2)	239(67.3)	355(100)
$\chi^2 = 6.81 \quad df = 4$							
어머니		31(9.7)	8(2.5)	13(4.1)	35(11.0)	231(72.6)	318(100)
전체		63(9.4)	13(1.9)	17(2.5)	110(16.3)	470(69.8)	673(100)
대학생과 어머니간의 차이		$\chi^2 = 21.30^{**} \quad df = 6 \quad p < 0.01$					

적으로 양가합의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78.2%로 가장 높았고, 형편대로 결정해야한다는 의견이 17.8%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생집단이 어머니집단보다 양가합의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79.4%)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7. 혼례에 소요되는 비용

혼례에 소요되는 비용은 <표 7>에서와 같으며 전체적으로 부족분만 부모가 부담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47.0%로 가장 높았고, 당사자와 부모가 공동부담한다는 의견에 26.3%, 주로 당사자가 부담한다는(22.4%)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중 남학생은 50%, 여학생은 46.4% 모두 부족분만 부모에게 부담하는 것의 결과에 높은 응답을 보였다. 이는 한국소비자보호원(1997)에서의 연구결과 부모의 경제권을 첫 번째 순위로 나타낸 것과는 다르게 나

타난 결과로, IMF체제 이후 부모들의 경제권 위기에서 자녀들의 독립된 경제력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책임감 상승의 이유라 사려된다.

혼례비용의 지출 결정권은 당사자와 부모 합의로 결정한다는 의견이 높았으며(70%), 어머니(72.6%)와 대학생(67.3%)이 집단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8. 신혼주택 마련의 결정

신혼주택 마련에 관한 의사결정은 <표 8>에서와 같이 신혼주택마련은 전체적으로 형편이 나은 부모가 마련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49.0%였고, 이러한 경향은 대학생의 경우가 높은(60.8%)비율을 나타내었다. 어머니는 35.8%가 형편이 나은 집에서 마련함과 신랑신부 공동 부담이 23%로 나타나 어머니집단과 대학생이 유의한 집단간 차이가 있음

〈표 8〉 신혼주택 마련

n(%)

신혼주택 미련자		신랑	신랑부모	신랑신부 공동	신랑신부 부모공동	형편이 나은집 부모	기타	계
대학생	남학생	10( 5.8)	5(2.9)	22(12.8)	27(15.7)	100(58.1)	8(4.7)	172(100)
	여학생	13( 7.1)	5(2.7)	17( 9.3)	29(15.8)	116(63.4)	3(1.6)	183(100)
	소계	23( 6.5)	10(2.8)	39(11.0)	56(15.8)	216(60.8)	11(3.1)	355(100)
어머니		55(17.3)	29(9.1)	29( 9.1)	73(23.0)	14(35.8)	18(5.6)	218(100)
전체		78(11.6)	39(5.8)	68(10.1)	129(19.2)	330(49.0)	29(4.3)	673(100)
대학생과 어머니간의 차이		$\chi^2 = 57.56^{***}$ df = 6 p<0.001						

을 보였다.

이 결과는 주로 신랑이 마련해야 한다는 이윤  
금·서병숙(1999)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 9. 예상 혼례비용

혼례를 위한 예상 비용을 조사한 결과는 <표 9>  
와 같다. 대학생과 어머니집단간에 주택임대비, 예  
물, 예단, 예복비, 결혼식, 신혼여행비에 있어 유의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이 어머니보  
다 높은 비용을 예상하고 있었다.

또한 연주, 케익, 기타비용은 어머니가 대학생  
자녀보다 높은 비용을 예상하고 있어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주택구입이나 임대비용이 가장 많아 5,000~  
6,0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며 주택비를 제외  
한 나머지 비용으로는 3,000~3,500만원으로 예상  
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대학생이나 어머니간의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다른 항목에 있어 예상비용이  
비슷하였으나 대체로 대학생이 어머니집단보다 높  
은 비용을 예상하였고, 또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비용을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예상 혼례비용

(단위: 천원)

혼례비용	대학생과 어머니					
	대학생			어머니 (N=318)	전체	t-값
	여학생 (N=183)	남학생 (N=172)	전체			
주택구입비	64,260	58,400	61,420	62,940	62,140	- .55
주택임대비	53,470	51,170	52,357	46,390	49,540	2.23*
예물	354	350	352	268	324	2.48*
예단	370	368	369	286	341	2.39*
신혼살림	385	362	374	325	357	1.54
합값	376	349	363	326	350	.94
약혼식	419	359	390	409	396	- .50
예복비	368	340	354	275	328	2.25*
아외촬영비	355	336	346	342	344	.10
결혼식	359	352	354	282	331	2.14*
신혼여행비	351	337	345	177	155	1.96*
음식집대 및 답례	356	353	355	298	336	1.61
연주, 케익, 기타	418	364	396	454	420	- 2.56**
주택비 제외한 합계	35,350	33,430	34,390	30,340	33,040	- 1.76

\*\* p<0.01 \* p<0.5      참고: t값은 대학생과 어머니간의 차이검증 결과임



10. 혼례를 위한 저축

혼례준비를 위한 저축여부는 <표 10>과 같다.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저축할 예정이 49.5%, 저축하고 있음이 28.3%를 보였다. 대학생과 어머니집 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대학생은 앞으로의 저축에 높은 비율(67.2%)을 보였고, 어머니는 현재 저축하고 있음(46.7%)을 높게 나타냈다. 혼례를 위한 경제적 계획은 젊은 자녀와 부모 모두 중요하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머니 집단은 현재 저축을 하고 있는 경우가 46.7%로 높게 나타나 선행연구(이윤금, 서병숙 1999) 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와 대학생 두 집단간 육례절차에 대한 지식에서 납채, 문명, 납길, 납폐, 청기, 친영, 전안례, 교배례, 근배례, 구고례, 우귀에 대해 어머니의 지식이 대학생집단 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혼례는 조선후기부터 사례편람에 따라 사례(납채, 납폐, 친영)를 행하여(이영인, 1993)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여전히 잘 알지 못하고 있음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지식정도가 높음은 대학의 교양과목이나 고교시절 가정 및 가사과목에서 이에 관한 지식을 습득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11. 육례절차에 대한 지식정도

육례절차에 대한 지식정도를 알아본 결과 <표 11>과 같이 구고례(폐백)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알고 있

12. 혼례시 사용되는 음식마련의 필요도

혼례시 사용되는 음식마련의 필요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각 문항별 중복응답을 사용하였다.

<표 10> 혼례준비를 위한 저축

	저축하고 있음	저축하지 않음	앞으로 저축할 예정	기타	계
대학생	39(11.3)	54(15.7)	231(67.2)	20(5.8)	344(100)
어머니	148(46.7)	52(16.4)	96(30.3)	21(6.6)	317(100)
전체	187(28.3)	106(16.0)	327(49.5)	41(6.2)	661(100)

n(%)

$\chi^2 = 125.33^{***}$      $df = 6$      $p < 0.001$

<표 11> 육례절차의 지식

	여학생 (n=183)	남학생 (n=172)	대학생 전체	어머니 (n=318)	계 (n= 673)	대학생과 어머니간의 차이 ( $\chi^2$ 값)
납채	6( 3.2)	4( 2.3)	10( 3.3)	89(28.0)	99(14.7)	103.89***
문명	5( 2.7)	1( 0.6)	6( 1.9)	50(15.7)	56( 8.3)	58.49***
납길	9( 4.9)	3( 1.7)	12( 3.9)	54(17.0)	66( 9.8)	49.28***
납폐	8( 4.4)	10( 5.8)	18( 5.9)	75(23.6)	90(13.4)	62.87***
청기	4( 2.2)	2( 1.2)	6( 1.9)	46(14.5)	52( 7.7)	69.47***
친영	4( 2.2)	5( 3.0)	9( 3.0)	45(14.2)	54( 8.0)	92.93***
전안례	5( 2.7)	5( 3.0)	10( 3.3)	76(23.9)	86(12.8)	82.88***
교배례	19(10.4)	14( 8.1)	33(10.9)	128(40.2)	161(23.9)	105.78***
근배례	12( 6.6)	7( 4.1)	19( 6.3)	94(30.0)	119(17.7)	90.70***
구고례(폐백)	88(48.1)	54(31.4)	142(47)	196(61.6)	338(50.2)	43.34***
우귀	23(12.6)	14( 8.1)	37(12.3)	139(43.7)	176(26.2)	110.37***

n(%)

\*\*\* p < 0.001

〈표 12〉 혼례음식의 필요도

n(%)

	여학생	남학생	대학생 전체	어머니	전체	대학생과 어머니간의 차이 ( $\chi^2$ 값)
붕치떡	58 (24.6)	57 (24.2)	115 (48.7)	121 (51.3)	236 (100)	7.35
밥	138 (27.5)	108 (21.6)	246 (49.1)	255 (50.9)	501 (100)	16.57***
대추	134 (26.8)	107 (21.4)	241 (48.2)	259 (51.8)	500 (100)	24.42***
닭	120 (26.0)	107 (23.2)	227 (49.2)	234 (50.8)	461 (100)	11.94**
쇠고기편포	98 (26.1)	91 (24.3)	189 (50.4)	186 (49.6)	375 (100)	3.61
약과	119 (30.6)	94 (24.2)	213 (54.8)	176 (45.2)	389 (100)	1.49
엿	94 (27.6)	77 (22.6)	171 (50.1)	170 (49.9)	341 (100)	2.48
고기	152 (28.4)	133 (24.8)	285 (53.2)	251 (46.8)	536 (100)	.30
떡	152 (27.7)	130 (23.7)	282 (51.5)	266 (48.5)	548 (100)	10.58**
전	145 (28.4)	113 (22.1)	258 (50.5)	253 (49.5)	511 (100)	14.62***
과일	154 (27.5)	138 (24.6)	292 (52.1)	268 (47.9)	560 (100)	4.46
음료	158 (27.8)	143 (25.1)	301 (52.9)	268 (47.1)	569 (100)	.98
주류	90 (20.5)	120 (27.3)	210 (47.7)	230 (52.2)	440 (100)	24.40***
정과	92 (26.8)	83 (24.2)	175 (51)	168 (49)	343 (100)	3.80
유과	93 (26.9)	87 (25.1)	180 (52)	166 (48)	346 (100)	1.94
서양음식	60 (30.9)	61 (31.4)	121 (62.4)	73 (37.6)	194 (100)	13.08**

\*\*\* p<0.001    \*\* p<0.01

전체적으로 모두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대학생보다 어머니가 필요도를 더 높게 나타내었다.

밥은 여학생이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chi^2 = 7.06^*$ ,  $p<0.5$ ), 전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응답을 하였다( $\chi^2 = 11.35^{**}$ ,  $p<0.01$ ). 주류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내었다( $\chi^2 = 17.88^{***}$ ,  $p<0.001$ ).

어머니와 대학생집단간에 밥, 대추, 닭, 전, 주류, 떡, 서양음식은 어머니가 대학생보다 필요도가 높게 나타내었다.

대체로 피로연에서 고기, 떡, 전, 과일, 음료등은

전체적으로 모두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함들일 때의 붕치떡의 필요도는 매우 낮았다.

### 13. 혼례시 하객초청 방법과 범위

하객초청방법으로는 <표 13>과 같이 대학생과 어머니 다수가 전화·우편발송을 선택하였고(62.6%), 다음은 대학생이 e-메일·전화(19.2%), 어머니는 우편발송(68.6%) 이 많아 젊은 층의 e-메일 활용을 엿볼 수 있었다.

〈표 13〉 혼례시 하객초청 방법과 범위

n(%)

		대학생	어머니	전체
초청방법	우편발송	58 (16.3)	69 (21.7)	127 (18.9)
	전화	8 (2.3)	7 (2.2)	15 (2.2)
	전화, 우편발송	203 (57.2)	218 (68.6)	421 (62.6)
	컴퓨터메일, 전화	68 (19.2)	12 (3.8)	80 (11.9)
	기타	18 (5.0)	12 (3.8)	30 (4.5)
초청범위	친척	.	10 (3.1)	10 (1.5)
	친척, 친구	96 (27.0)	67 (21.1)	163 (24.2)
	친척, 친구 이웃	230 (64.8)	221 (69.5)	451 (67.0)
	친척, 친구, 이웃, 유지	15 (4.2)	14 (4.4)	29 (4.3)
	기타	14 (3.9)	6 (1.9)	20 (3.0)

초청범위는 두 집단 모두 친척, 친구, 이웃(67%)을 모두 대상으로 하였다.

#### 14. 혼례시 주례로 모시고 싶은 분

혼례시 주례로 모시고 싶은 분을 조사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전체적으로 은사를 모시겠다는 경우가 71.1%로 가장 높아 결혼식에서의 주례역할은 타의 존중을 받는 사람을 선택할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기타 20.8%, 사회저명인사나 예식장에서 알선해 주는 분을 모시겠다는 경우는 10% 이내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결혼비용으로 부모가 사용한다는 경우가 36.9%로 가장 높았고, 혼례당사자의 장래를 위한 저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25.4%, 결혼비용으로 혼례당사자가 사용한다는 경우가 19.5%, 신혼여행 등 신혼기 비용으로 사용한다는 경우가 10.6%로 나타나 부조금은 장래를 위한 준비보다는 주로 혼례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여 어머니는 혼례비용으로 부모가 사용하려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고, 대학생은 당사자의 장래를 위한 저축을 하거나 부모든 당사자든 결혼비용으로 사용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 16. 폐백시 절값에 대한 의견과 사용

##### 15. 혼례시 받은 축의금의 용도

혼례시 받은 축의금의 용도를 본 결과는 <표 15>와 같다.

폐백시 받는 절값에 대한 의견은 <표 16>과 같이 절값이 필요하다는 의견(73.1%)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26.8%)보다 높았고 대학생보다 어머니가

<표 14> 주례로 모시고 싶은 분

	n(%)		
	대학생	어머니	전체
은사	242(70.3)	223(71.9)	465(71.1)
사회 저명인사	18(5.2)	27(8.7)	45(6.9)
예식장에서 알선	5(1.5)	3(1.0)	8(1.2)
기타	79(23.0)	57(18.4)	136(20.8)

<표 15> 축의금의 용도

	n(%)			
	대학생	어머니	전체	대학생과 어머니간의 차이
부모가 결혼비용으로 사용	91(27.3)	143(74.4)	234(36.9)	$\chi^2 = 28.75^{***}$ df=6
혼례당사자가 결혼비용으로 사용	73(21.9)	51(16.9)	124(19.5)	
혼례당사자의 신접살림 장만	28(8.4)	21(7.0)	49(7.7)	
혼례당사자의 장래위해 저축	102(30.6)	59(19.5)	161(25.4)	
신혼여행비 등 신혼기 비용으로 사용	39(11.7)	28(9.3)	67(10.6)	

\*\*\*  $p < 0.001$

〈표 16〉 폐백식 절값에 대한 의견과 사용

n(%)

		대학생	어머니	전체	대학생과 어머니간간의 차이
절값에 대한 의견	필요하다	40(11.6)	52(16.7)	92(14.0)	$\chi^2 = 29.98^{***}$ df= 5
	조금필요하다	182(52.9)	206(66.6)	388(59.1)	
	필요하지 않다	122(35.5)	54(17.3)	176(26.8)	
절값의 용도	신혼여행비용	75(24.6)	109(36.8)	184(30.6)	$\chi^2 = 29.35^{***}$ df= 5
	신부용돈	18( 5.9)	31(10.5)	49( 8.2)	
	신랑신부협의를해 사용	199(65.2)	152(51.4)	351(58.4)	
	이웃돕기, 기타	13( 4.3)	4( 1.4)	17( 2.8)	

\*\*\* p<0.001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값의 용도는 전체적으로 58.4%가 신랑, 신부가 협의해 사용한다고 응답하였고 30.6%가 신혼여행비로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대학생이 어머니보다 신랑신부 협의로 사용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신혼여행비로 사용한다는 경우는 어머니집단이 대학생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 IV. 요약 및 결론

대학생과 어머니가 원하는 결혼형태, 결혼장소, 혼례절차, 혼례가치관, 의사결정, 혼례비용 등과 혼례지식, 혼례음식준비, 축의금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한 결과에 대한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다.

- 1) 원하는 결혼형태는 두 집단 모두 다수가 현대식이었으며, 다음이 종교의식으로 자녀와 어머니가 일치하였다.
- 2) 결혼일시의 경우 두 집단 모두 주말이나 휴일을 선호하였는데 이는 선행연구결과(한국소비자보호원, 1991)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3) 원하는 결혼장소에 대해 일반 예식장의 선호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 선행연구를 지지하고(한국소비자 보호원, 1991)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호텔예식장이 가장 낮게 나타나 건전한 생각이 주류를 이룬다고 볼 수 있으며, 종교장소나 공공시설의 활용을 높여 장소의 전환에 대한 의의를 교육내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 4) 혼례절차에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건강진단서 교환은 필요도가 높은 항목에 포함되어 바람직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논란이 많은 청첩장 발송은 여전히 필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에서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5) 두 집단 모두가 대체적으로 부모가 자녀의 혼례준비를 도와야한다고 생각하고 대학생이 어머니보다 결혼생활에 대한 물질의 중요성을 더 높게 평가하여 대학생이 더 현실적인 것으로 나타나 서구적 현대식 결혼과는 다른 결과로 볼 수 있다.
- 6) 혼례일시, 장소 결정의 경우에 대학생과 어머니들 중 대부분이 양가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함으로써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남녀 양가의 의견이 동등하게 존중될 수 있는 발전된 평등사회의 한 측면으로 볼 수 있다.
- 7) 혼례비용에 대해서는 대학생이 결혼당사자가 일차적으로 마련하고 부족분에 대해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였으며, 혼례비용 지출결정권은 당사자와 부모가 합의하여 실행한다는 의견에 높은 응답율(69.8%) 나타났다.
- 8) 신혼주택의 마련은 전체적으로 형편이 나은집 부모가 마련해야 한다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 직장이나 은행에서 저리대출이나 신혼주택의 저렴한 임대 등의 사회의 제도적 지지가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 9) 혼례비용 예측은 주택마련은 5천 내지 6천만

원 정도로 가장 큰 금액을 보여 선행연구(김모란, 1994)를 지지하고 있었고, 주택이외의 비용은 3천만원 정도로 총 비용은 8천 내지 9천만원 정도가 되며, 대학생과 어머니의 예상 혼례비용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 10) 혼례를 위하여 저축할 의도를 대학생이 높게 나타내었고, 어머니들은 이미 저축하고 있는 경우가 높게 나타나 결혼은 미리부터 금전적으로 준비해야 할 저축 요구도가 매우 높은 가정의 대사라 할 수 있다.
- 11) 전통 혼례절차에 있는 항목들 중 친영, 전안례, 구고례, 교배례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사람이 많으나 그 외의 항목들(납채, 문영, 청기, 우귀 등)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았다. 그러나 본 결과와 다른 연구(이윤금, 서병숙1999)에서는 혼례절차를 경제수준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매우 중요시한다고 하였다.
- 12) 혼례식 음식준비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현대인들이 평상시 즐겨 먹는 고기, 떡, 전, 과일, 음료, 정과 등의 필요성은 크게 느끼나 폐백음식(밤, 대추, 닭, 육포, 옛 등)의 필요도가 낮은 것은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폐백음식은 의식면에서는 낮으나 관습의 이행이 강력하여 더 과비용으로 마련하는 경향이 이에 대한 교육이 요구되어 진다.
- 13) 혼례시 하객초청 방법은 대학생과 어머니 다수가 전화 및 우편발송을 가장 많이(62%) 선택하였고, 초청범위는 친척, 친구, 이웃(67%)으로 하였다. 또한 대학생들에게 e-메일 활용을 한다고 나타나 우편발송 다음의 순으로 응답을 보였다.
- 14) 혼례식 주례로 모실 분은 모두 첫째로 은사를 선택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사회인사 또는 예식장의 알선인에 대한 선호도는 낮았다. 이러한 경향은 시대적으로 현행되고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었다.
- 15) 혼례시 받은 축의금의 용도에 대해 어머니는 부모가 결혼비용으로 사용한다고 하였고, 대학생은 장래를 위해 저축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대학생과 어머니가 차이를 보였다.

16) 폐백시 절값은 대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대학생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도 약 36%나 되어 어머니와 차이를 나타내었다. 또한 절값 사용에 있어서는 신랑신부의 의논하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다음으로 신혼비용으로 쓰는 것을 선호하고 어머니가 대학생보다 더 신혼여행비용으로 쓰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대학생과 어머니간의 혼례에 관한 전반적인 의식을 보면 첫째, 결혼형태에 대해서는 세대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전통식 결혼형태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해 볼 수 있다. 둘째, 결혼일시는 두 집단 모두 주말이나 휴일을 선호하여 결혼일시를 평일로 전환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될 수 있다. 셋째, 결혼장소는 일반 예식장의 선호성이 높아 건전한 혼례문화의 장을 지속시킬 수 있을 것이며, 청첩장 발송의 범위와 양식의 문제는 이 결과만 가지고 변화를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결혼문화가 전체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과거지향적 절차에 해당되는 사주교환, 궁합보기, 약혼식, 예물·예단하기 등은 필요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세대간의 차이는 없고, 결혼문화가 이미 많이 바뀌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넷째, 주례는 신랑이, 혼수는 신부가 준비하는 전통적 사고에서 주택과 혼수를 신랑, 신부가 함께 해결해야 하고, 결혼은 당사자 자신들의 노력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아직 미약하다고 볼 수 있어 성인자녀들의 독립심과 독자적 생활력을 강조하는 교육과 사회적 지지가 요구된다. 다섯째, 전통적인 것을 모두 현실화 할 필요는 없으나 선조들이 혼례에 대해 부여한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는 알고 있도록 하며, 필요부분에 있어서는 현대에 되살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결혼 교육에서 포함하여 다루어야 할 내용이라 생각된다. 여섯째, 결혼 비용마련에 있어 본인들의 마련과 부족분에 대한 도움을 부모님에게 청한다는 결과는 성인 자녀들이 독립적인 생활의 터전 마련을 위한 의식의 발전이라 할 수 있다. 일곱째, 폐백시 절값의 수준은 다르겠으나 신혼부부의 의

논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고 있으나 신혼여행 비용으로 추가하면서 예비비로 사용되어 과소비 경향성을 증가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대학생과 부모의 혼례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은 옛 것을 이어가는 전통과 현대의 새로운 변화를 함께 추구하는 것에서 발생될 수 있는 또 다른 요소를 적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의식교육을 시켜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를 진행하면서 제한점을 보면 학생들에게 본인의 어머니에게 질문지에 응답을 받은 후 가져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려 회수율이 낮았고, 자가에서 다니는 학생들이 아닐 경우 응답을 받아 질문지를 가지고 오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혼인적령기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혼례에 대한 의식을 새롭게 고취시키거나 예비부모교육을 시켜 현대에 적합한 혼례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혼인적령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혼례 및 혼수에 관한 실질적인 워킹을 하여 자녀들의 행복 지수가 물질이 아닌 건강한 몸과 마음에 있음을 주지시킬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가정적·사회적으로 큰 행사인 혼례문화가 과장되지 않도록 하고, 허식에 의해 진행되지 않도록 하여 경제적이며 근검절약할 수 있는 혼례문화를 이룰 수 있도록 사회에서 적극 홍보하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결혼의식, 혼수, 축의금

## 참고문헌

김명나·이정우(1999). 도시주부의 혼례의식·혼례행동 및 혼례만족, 신혼기주부와 기혼딸을 가진 어머니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

지 37권 6호 41 - 57.

김모란(1994). 한국사회의 혼인거래 관행에 대한 연구 - 도시중산층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박사학위 논문.

김성숙·서병숙(1999). 계층, 물질주의, 과소비 성향에 따른 혼례 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 37권 9호.

김영인, 안혜숙(2000). 폐백음식의 지역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생활문화학회지, 3권 1호 13 - 18.

박혜인·조은숙(1998). IMF 경제위기이후 혼례 비용의 계층별 변화,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이기춘·조은정(1992). 도시 신혼기 가계의 결혼비용과 신혼주거자금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권 1호 111.

이영인(1993). 우리나라 전통의례 음식과 그 의식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윤금·서병숙(1999). 도시민의 혼례의식에 대한 관련요인 분석: 미혼남녀와 혼인적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비교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제 37권 4호 111 - 124.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1990). 건전소비생활을 위한 세미나(소비자보호 세미나), 50 - 51.

저축추진중앙위원회(1996). 결혼비용 지출실태 및 의식조사.

전효정(1998). 한국의 배우자 선택과 결혼적응의 매카니즘; 인간발달적·생태학적모형의 중매·연애결혼에의 적용, 대한가정학회지 제 36권 11호.

한국가정생활개선진흥회(1997). 오늘의 혼례문화 그 진단과 모색, 51 - 82.

한국소비자보호원(1997). 혼수실태 조사 결과, 11 - 28.

한국소비자보호원(1991). 결혼예식장 이용 실태조사

한정화(1999). 남녀 대학생의 혼례비용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고양학회지.

홍형욱(1998). 한국도시민의 혼수규범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 36권 7호.